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바람이 불어서 시

원할

제목 : 노을공원 나들이

우리는 노을공원 나들이를 갈려고 유부초밥을 샀고 피자를 샀다. 그리고 우리가족은 노을공원에 갔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줄을 섰다. 그래서 한30분을 기다리고 매통이전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노을공원에는 미로, 도미노, 들판, 볼록과 윷두막이 있었다.

가차마다 우리는 돛자리를 피고 밥을 먹었다. 큰거만 내 친구 탐이는 배가안고 프다고 하고 RC카를 갖고 놀았다. 그런데니 탐이엄마가

“탐이는 한번 조종기를 잡으면 밤에 잠도안 자고 계속 하는데 배터리가 갈래!!!”라고 하셨다.

나는 밥을 다먹고 도미노를 할려고 했다. 그런데 도미노가 나무로 되어있어서 손에 개가 박혔다. 개를 빼고 RC카 점프대를 만들었다. RC카가 점프대를 넘을때 멀리 갈줄알았지만 50cm도 못갔다.

우리는 야구도하고 윷령 놀이를 했지만 윷령놀이가 가장 재밌었다. 윷령놀이를 했는데 탐이가 윷령이고 우리가 도망갔다. 나는 막혀있는 곳을 뛰어 넘을수 있지만 탐이는 못넘었다. 그래서 도망가기 쉬웠다. 웃긴것은 탐이가 죽하를 잡고 죽하가 탐이를 잡고를 5번이나 반복한 것이다. 재미있는 하루였다. 다음에또가서 놀고 싶다.

* 사진은 E-mail로 보냈습니다